

『8만 시간 디자인』 공모전 기록물 분석을 통해 본 백세시대 노인의 노후에 대한 기대와 계획에 관한 연구

김 유 진
(경북대학교)

인구 고령화 비율이 높아지고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노년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노후에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8만 시간 디자인 공모전』에 제출된 기록물 분석을 통해 21세기 노인이 갖고 있는 노후에 대한 기대와 계획을 살펴보는 것이다. 2011년 첫 공모전에 참여한 인원 중에서 60세 이상 응모자 59명분의 에세이 자료를 중심주제분석(thematic analysis)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중심주제로 도출된 세 가지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인생 2막은 자기 자신으로 사는 시간으로서 주도적 노력이 필수임, ② 개인적 의미와 사회적 가치가 있는 현재진행형 노년의 삶을 살고 싶음, ③ 8만 시간을 마음껏 디자인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부족.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백세 시대 노후계획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여건 조성에 대해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주요용어: 노후에 대한 기대, 노후계획, 8만 시간, 기록물 분석, 중심주제분석

이 연구는 2013학년도 경북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투고일: 2014.9.18 ■ 수정일: 2014.12.8 ■ 게재확정일: 2014.12.22

I. 서론

평균수명의 증가와 더불어 은퇴 후 비교적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진 사실을 주목하면서(Jonsson, 2011), 인생 후반기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베이비부머의 은퇴와 함께 백세 시대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가운데 21세기 신조어라고 할 수 있는 신중년, 뉴시니어, 또는 제 3연령기(the third age)라는 용어가 자연스럽게 회자되고 있다(이의수·기영화, 2010; 신경아·한미정, 2013; 한경혜, 2013; Laslett, 1989). 이는 우리가 현재 중년과 노년의 정의가 변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Powell & Longino, 2002; Biggs et al., 2006). 또한 이러한 현상은 노년기를 조용히 여생(餘生)을 보내는 부가적인 시기가 아닌 비중 있는 발달단계로 받아들여지게 할 뿐 아니라(정경희, 2013), ‘노후에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중요한 화두로 던진다. 평균 수명의 증가는 단순히 더 오래 살게 된다는 의미만이 아니기에 그만큼 길어진 삶의 후반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면서 긴 시간을 보낼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사회적 공론의 장으로 이끈 것이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그리고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가 주최하여 『8만 시간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 것이다. ‘8만 시간’이란 용어는 가토 히토시라는 일본 작가의 『정년 후 더 뜨겁게 살아라(김성은 역, 2008)』라는 책에서 처음 언급된 것이다. 여기서 8만 시간의 의미는 은퇴 후 20년을 산다는 가정 하에 기본적인 일상생활시간을 제외한 여가 시간이 8만 시간 이상이라는 것으로 만약 은퇴 전 사십 년을 일했다면 그 사람의 전체 노동시간 역시 약 8만 시간이라고 한다. 은퇴 후 ‘8만 시간’이란 용어는 인생 후반기의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별다른 계획 없이 그 긴 시간을 맞이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무위(無爲)와 고독(孤獨)의 길이며, 사회적으로는 노인부양 부담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 및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1등이라는 현실 앞에서 준비 안 된 노후는 재앙이라는 인식이 심화되고 있다(권중돈 외, 2011). 따라서 2011년 처음으로 개최된 『8만 시간 디자인 공모전』은 노후의 삶에 대한 계획을 개인적 차원에서뿐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하도록 독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8만 시간 디자인 공모전』에 참가한 응모자들 중에서, 특히 노인 참여자

들이 노년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노후에 어떠한 기대를 갖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작업으로 시작되었다. 유례없이 길어진 노년기를 살고 있는 노인들이 노년기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며 무슨 기대를 갖고 있는지 이들의 내부자적 시각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노후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 전반적인 노년기 삶의 질이 정해지는 만큼(박충선, 1998), 백세시대 고령화 시대에 꿈꿀 수 있는 노후생활에 대한 기대와 계획을 연구할 필요가 높아졌기 때문이다(정진웅, 2012; Pepin & Deutscher, 2011). 학자들에 의하면, 현재 고령자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긴 노년기를 보내게 되지만 정작 노년기 역할모델은 부재한 시기에 살고 있다(정진웅, 2012). 또한 이들은 미디어를 통해 배포되는 활동적이고 건강한 노년의 이미지에 가려져 언뜻 보기에 긍정적이지만 사실상 자연스런 노화를 회피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고 있다(정경희 외, 2006; 한경혜·윤성은, 2007; 정진웅, 2012; Katz, 2000). 나아가 성공적 노화 및 생산적 노화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 부재한 채 정책과 법이 만들어지는 현실에서 살고 있다(이가옥 외, 2004; 최희경, 2010; Biggs et al., 2006). 게다가 노후 준비 필요성이 처음으로 유난히 강조되는 시기에 살고 있으나 정작 이들의 노년에 대한 기대와 준비는 어떠한가에 대해 충분히 연구되지 않고 있다(이준우 외, 2011).

본 연구는 『8만 시간 디자인』 공모전에 제출된 기록물(documents)인 에세이 분석을 통해 백세시대 노인의 노후에 대한 기대와 계획이 무엇인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 질문을 설정하였다. 첫째, 노인 응모자들은 노후에 대해 어떠한 기대를 갖고 있는가. 둘째, 이들은 노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자 하는가. 셋째, 노인 응모자들의 그러한 기대와 계획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현실과 동떨어진 담론에서 벗어나 다양하면서도 주체화된 노년 담론을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때(정진웅, 2012), 『8만 시간 디자인』 공모전은 노인 자신들의 이야기를 드러내는 담론의 장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연구의 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의 자료처럼 공모전에 제출된 에세이는 자격요건을 갖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하여 해당 주제에 관해 자신의 가치관과 경험을 드러내는 만큼 사회적 내러티브를 반영하는 자료로 여겨지고 있다(신기혁, 2007; 이상원, 2011). 최근 개인적 기록물을 단순하게 다른 종류의 자료(예, 심층 면담과 관찰 등)를 보완하는 자료로서 취급하는 것에서 나아가 질적 연구의 주요한 자료로서의 가치를 조명하고, 보다 활발하게 사회과학 연구 자료로서 활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Bauer, 2000;

Miller & Alvarado, 2005; Prior, 2008; Atkinson & Coffey, 2011).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분석의 결과는 노인들이 갖고 있는 노후에 대한 인식과 기대를 더 잘 이해하게 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노년기 삶의 목표와 의미가 어떠한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지 보여줄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백세 시대 노년에 추구할 수 있는 삶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것의 실현에 필요한 사회적 여건에 대해 살펴보고, 노후생활과 노후준비에 도움이 되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사회노년학 이론이 제안하는 ‘바람직한 노후’

우리 사회는 노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아마도 노년기를 “완벽과 성숙이 표현 되는 인생의 완성이”(김열규, 2009, 한혜경, 2012: 61에서 재인용)라고 보는 시각은 드물 것이다. 그보다는 쇠퇴와 상실, 배제 등을 떠올리기가 쉽다. 노화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의미는 근대화를 거쳐 산업사회로 들어서면서 강화되었다고 한다(정경희 외, 2006).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노동시장에서의 은퇴가 제도화되면서 노년기의 사람을 사회적인 무용의 존재로서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노년학 연구의 개념적 틀을 제공하고 있는 사회노년학 이론들은 은퇴 후 개개인이 노년에 어떻게 적응하는가의 문제를 설명하고자 하는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정경희 외, 2006; Katz, 2000)¹⁾. 예를 들어 역할이론에 의하면, 노년기에 잘 적응한다는 것은 노년기 역할 변화에 잘 적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노년기 역할에 대한 사회적 규범이 정립되지 않아 ‘역할 없는 역할’을 수행하느라 그에 따른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Rosow, 1976). 활동이론은 상실한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을 찾아 계속해서 활동적인 생활방식을 유지함으로써 삶의 만족을 높이는 것을 강조하고

¹⁾ 본 논문에서는 각각 이론의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노년에 관한 심리사회적 이론들이 노화 및 노년기를 바라보는 시각에 끼친 영향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하였다. 각 이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정경희 외(2006)와 김정석(2007)을 참고할 수 있다.

있다(Havighurst, 1961). 반면 유리이론에 따르면, 노인은 이전 활동으로부터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이유는 노인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변화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회 체계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이다(Cummings & Henry, 1961). 또 다른 초기이론인 지속성 이론은 개인의 적응 양식은 생애과정을 거쳐 유지되는 것으로 나이가 들어서도 자신에게 전형적인 생활양식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Atchley, 1989). 그 밖에 현대화이론, 연령계층이론 등에서는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의 특성을 강조하며 현대 노인의 삶이 전통사회와 다를 수밖에 없음을 설명한다(Cowgill & Homes, 1972). 간략하게 살펴본 초기 이론들은 지속성 이론을 제외하고는 노화의 부정적인 특징을 강조하며 노년기를 쇠퇴의 시기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Rowe와 Kahn(1997)은 이와 같은 초기 이론들과 그에 영향을 받은 실증 연구들이 노년기의 상실과 쇠퇴를 전제하고 그에 대한 적응을 강조하는 점을 비판하면서,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성공적인 노화가 가능함을 주장하였다. 노인들이 기능의 쇠퇴에 적응하기 전에 그 기능을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와 같은 성공적 노화 개념은 여러 가지 비판에도 불구하고,²⁾ 활동적 노화(active aging), 그리고 나아가 생산적 노화(productive aging) 개념과 함께 21세기 주요한 노년담론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유례없는 인구 고령화와 노인부양 인식의 변화, 그리고 노동 시장의 변화에 따라 노인들의 의존적인 면을 줄이고 자립을 독려하는 것이 필요해짐에 따라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의 삶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복지비용 부담을 덜고자 하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따라 개인의 노력과 책임을 강조하는 신노년 담론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이다(Katz, 2000; Holstein & Minkler, 2003). 소비주의 마케팅 전략 역시 성공적 노화 담론을 이용하여 노년을 “나이먹지 않는 영광의 은퇴기”로 묘사하면서(Rudman, 2006: 183), 바람직한 노년의 속성으로 자율성, 활동성, 젊음, 바쁨, 자기의존, 그리고 소비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Katz, 2000; Rozanova, 2010). 노화에 부여되는 의미 또는 바람직한 노후에 대한 인식이 사회문화적 가치에 의해, 그리고 정치·경제적인 이유에 의해 형성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²⁾ 성공적 노화 개념은 노화란 생애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것임을 간과하고 있으며, 마치 인생을 성공적 이거나 비성공적 또는 실패라고 이분화 하는 것처럼 들리게 한다. 이에 따라 성공적 노화의 기준에 맞지 않는 노인들은 주변화되고 실패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Minker & Fadem, 2002). 또한 성공적 노화 모델은 노화 경험에 미치는 구조적 불평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Chapman, 2005).

21세기 현재 우리나라는 노후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노인상으로서 긍정적인 이미지와 함께 무능력한 노동력으로서의 부정적인 이미지, 그리고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년기에 대한 높은 관심이 공존한다(김지혜·조성남, 2004). 여기에다가 서구에서 시작된 성공적 노화 개념이 바람직한 노년상으로 빠르게 자리 잡아가고 있다(한경혜·윤성은, 2007). 또한 의료계와 미디어의 부분별한 상업주의에 영향을 받아 “중년의 연장으로서의 노년 이미지(정진웅, 2006: 88)” 또는 ‘안티-에이징(anti-aging) 담론’(한혜경, 2012)까지 한 몫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노인 세대도 이러한 신노년 담론에 크게 영향을 받아 장년의 정체성을 지향하고(김지혜·조성남, 2004; 정진웅, 2012), 성공적 노년의 기준에 포함되기 위해 노력한다고 보고하고 있다(김주현 외, 2013).

2. 노후에 대한 기대와 계획에 관한 연구 동향

앞에서는 사회노년학 이론들이 ‘어떻게 나이 들어가야 하는가’를 처방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바람직한 노후에 대한 의미부여 작업을 정리한 것에 이어서 노후에 대한 기대와 계획에 초점을 둔 연구 동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발달심리학자들에 의하면, 나이 들수록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노화를 더 잘 받아들이게 하는 삶의 전략이 될 수 있다(Preda & Lachman, 2001; Lachman & Firth, 2004). 이미 노인이 된 사람들에게 노후준비를 논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싶기도 하지만,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노인들이 비록 젊은 세대에 비해 미래 계획을 하는 경우가 덜하다고 하더라도, 의식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노인의 경우 삶에 대한 만족이 더 높게 나타났다(Lachman & Firth, 2004). 또한 은퇴 후 불확실한 삶에 대해 통제감을 느끼면서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Yeung, 2013). 노인에게 미래를 계획한다는 것은 노화에 따른 삶의 여러 가지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게끔 하며, 지속적이면서도 가치 있는 인생 목표를 유지하는 능력을 갖췄음을 의미한다(Preda & Lachman, 2001). 무엇보다도 사회적 정체성이 모호한 노년기에 개별적인 삶의 목표를 갖는다는 것은 삶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데 도움이 된다(Bode et al., 2006). 이러한 유용한 점을 들어 노인이 노후생활에 대해 갖고 있는 욕구를 분명히 인식하고

정리하여 이에 대한 계획을 세우도록 독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Pepin, & Deutscher, 2011).

이와 같은 결과들은 노후준비 또는 노년기 발달과업 관련 연구를 위해서라도 노인 당사자 관점에서 노년기에 대한 기대와 계획을 살펴볼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관련 연구들이 보통 활동이론의 영향을 받아 은퇴 후 활동적 사회생활을 유지할 것을 강조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사회적 역할로서 자원봉사 활동을 권장하거나 배우와 자기계발을 지속할 것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정병은·이기홍, 2009; Weiss & Bass, 2002). 또는 독립과 의존의 기준에 따라 노년기를 구분하고, ‘은퇴 후, 의존 전’ 단계를 인생의 제3시기로 구분하며, 선택과 기회의 시간이자 개인적 성취에 전념할 수 있는 시기로 묘사하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Laslett, 1989; Karisto, 2007). 이와 같은 개념에 대해 ‘3시기 수사라고 평하며, 성공적 노화나 활동적 노화 담론에서와 같이 중년처럼 사는 노년기를 권장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Carr, 2008).

3. 연구 자료로서의 기록물 분석

개인적 기록물(personal document)이란 개개인의 자서전, 일기, 편지, 에세이 등과 같이 글쓴이의 삶에 대해 또는 특정 주제에 대해 독자를 염두에 두고 쓰인 문서를 일컫는다(Holbrook, 1995; Miller & Alvarado, 2005). 보통 질적 연구에서는 주로 면담이나 관찰의 방법을 활용하여 내부자의 시각(emic)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는 것을 추구한다. 자료수집 과정에서 연구자와 참여자간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하는 만큼 그러한 과정을 통해 생성되는 것이 아닌 기록물은 연구 자료로서는 부가적 소스로만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보통 질적 연구에서 기록물 문서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 삼각화(triangulation of data)식으로 활용되는 수준이다(Lincoln & Guba, 1989; Patton, 2002).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말을 통해 전달하기도 하지만 글로 써서 표현하기도 한다. 실제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 감정, 기억, 또는 계획 등을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글을 통해 드러낸다(Bauer, 2000). 이에 따라 독자는 글을 통해 글쓴이가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을 어떻게 경험하고 해석하는지 감지할 수 있다(Prior, 2003).

즉, 개인적 기록물을 통해 작성자의 아이디어, 규범과 가치, 관심사, 사고방식, 즉 내부자 시각을 살펴볼 수 있다. 문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자신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며, 바로 이런 특성으로 인해 연구자는 개별 문서를 통해 그 개인이 부여한 의미에 접근할 수 있다(Arosio, 2010). 또한, 개인적 기록물은 단순한 문서 이상의 것으로 사회적 구성물(social constructs)이자 동시대의 문화적 가치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다(Prior, 2003; 2008; Atkinson & Coffey, 2011). 이에 따라 개인적 기록물을 단순히 다른 자료를 보완하는 차원을 넘어서 연구의 주요한(primary) 자료로서 그 가치를 조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Holbrook, 1995; Prior, 2008; Atkinson & Coffey, 2011).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 시대에 사람들의 인식과 경험을 살펴볼 수 있는 매우 다양한 자료가 넘쳐나는데(Bauer, 2000), 그중에서도 공모전 에세이는 해당 주제와 자격요건 내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하여 자신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는 만큼 동시대의 문화를 반영하는 자료로 여겨진다(신기혁, 2007; 이상원, 2011). 이에 따라 공모전에 참여한 사람들의 인식을 살펴보는 작업을 토대로 문화 현상을 고찰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신기혁, 2007; 이상원, 2011), 베이비부머들의 노후준비에 대한 이해를 살펴본 연구가 진행되었다(김유진·정가운, 2014).

III. 연구 방법론

1. 자료에 대한 이해 및 참여자의 특성

본 연구의 자료는 2011년 가을 처음으로 개최된 『8만 시간 디자인 공모전』에 응모된 에세이이다. 신문과 방송, 인터넷 매체, 관공서 등을 통해 참여 홍보가 이루어진 『8만 시간 디자인 공모전』의 응모자격은 만 40세 이상의 성인남녀(당시 1971. 12. 31이전 출생)로서 공모전의 응모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제시되었다.

- 은퇴 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계획에 대해 자유롭게 작성
- 과거 경험, 현재의 상황, 미래의 내 모습을 적절히 반영하여 작성

연구자는 본 연구를 위해 2012년 겨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자료 공유를 요청하였고, 학술연구용으로만 자료를 활용한다는 서약 후에 다음과 같은 관련 자료를 제공받았다. 응모 순으로 기재된 응모자의 연령과 성별이 포함된 리스트 및 에세이 복사본으로서, 여기에 응모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 『8만 시간 디자인 공모전』 에세이가 연구 자료로 적합한지 살피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개인적 기록물을 연구 자료로 활용하기에 앞서 먼저 자료의 적합성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이다.

일명 ‘원전비평(source criticism)’작업이 필요한데, 그것은 문서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진다(Jordanova, 2000; Howell & Prevenier, 2001). 먼저 외적 차원(external critique)의 평가를 통해 자료의 진정성(authenticity)과 정확성(accuracy)을 따져봐야 한다. 기록물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8만 시간 디자인 공모전』의 연구 자료로서의 진정성과 정확성을 확인하는 작업은 제공받은 응모자 리스트 및 에세이 복사본을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두 번째는 자료의 내적 차원(internal critique)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해당 자료가 문서를 작성한 사람에 대해 무엇(예, 동기, 문해력, 사회적 지위 등)을 알려줄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그리고 해당 문서가 개인적 차원의 내용뿐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는 자료인지 따져볼 뿐 아니라 편향된 성향에 영향을 받은 자료인지 확인해야 한다. 자료의 내적 차원 평가는 사회복지, 발달심리, 평생교육, 그리고 미학 전공 네 명의 외부 자문단과 함께 각각 무작위로 열 편의 에세이를 선정하여 해당 자료가 무엇을 알려주는 자료인지 살펴보았다. 원전작업 비평 결과 『8만 시간 디자인 공모전』 에세이는 작성자의 생애사, 가정사, 가치관, 삶에 대한 계획 등을 풍부하게 담고 있는 자료라고 판단하였다. 참여자들의 삶을 알게 해주는 자서전적 세부 사항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2011년 공모전에 참여한 인원은 총 220명이었다. 본 연구의 자료는 그중에서 60세 이상 참여자들인 59명분의 에세이 자료이다. 남자 44명, 여자 15명인 60세 이상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67세였으며, 역연령별로 참여자 수를 보면, 60-69세 41명, 70-79세 17명, 80세 이상 1명으로 최고령 참여자의 나이는 81세로 나타났다. 59명의 응모자 중 현업에 종사 중인 사람은 여덟 명(농업, 무역업, 자영업, 교직 등)이었고, 주부라고 자신을 소개한 경우는 아홉 명, 나머지 42명은 은퇴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은퇴 전의

직장을 밝힌 경우를 보면 교사, 교수, 공무원, 군인, 신문 및 방송관계자, 사회복지사 등의 직업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며, 세 명의 응모자는 자신의 직업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응모자들의 전·현직 경력으로 비추어 볼 때 대부분의 학력이 높을 것으로 유추되었다. 이들은 주로 신문의 광고, 인터넷 동호회 공지 사항 등을 통해 『8만 시간 디자인 공모전』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었다.

2. 자료 분석

『8만 시간 디자인 공모전』 에세이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문서 연구를 위한 방법론적 틀에 관해 상세히 정리한 Arosio(2010) 등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 “본 자료는 보건복지 연구에 어떤 식으로 공헌할 수 있는가?”, “에세이 분석을 통해 어떠한 지식이 형성될 수 있는가?” 기록물 문서 분석은 담론분석, 내러티브 분석, 또는 질적내용분석 등 연구 질문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Arosio, 2010). 본 연구는 Braun과 Clarke(2006)이 제시한 중심주제분석(thematic analysis)을 활용하였다. 귀납적 탐구방법으로서 중심주제분석 방법은 주요 패턴에 관해 기술하는 것뿐 아니라 주요 중심주제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해석하게 한다(Braun & Clarke, 2006).

본격적인 분석은 여러 번 자료를 읽으며 의미를 가진 잠재적인 코드를 도출하는 식으로 진행하였다. 개방코딩과 같은 초기 코딩작업을 통해 372개의 코드를 29개의 범주로 목록화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질문에 따라 자료 코딩이 이루어졌지만(theoretical thematic analysis), 주요 중심주제들이 자료를 기반으로 생성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Patton, 1990). 일단 코드들 간의 연관성이 발견되면서 코딩 작업이 보다 구체적이 되었고, 본격적인 해석이 가능해졌다. 응모자들의 에세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것을 중심주제(theme)라고 하는데, 에세이 작성자의 관점을 반영하는 내부자적 주제(emic theme)라고 할 수 있다. Braun과 Clarke(2006)이 제안한 대로 중심주제 지도(thematic map)를 그려보면서 코드들 간의 관계, 주제들 간의 관계, 서로 다른 차원의 주제들 간의 관계를 여러 번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표 1>에서 정리한 것처럼 세 개의 중심주제가 도출되었다. 중심주제들의 내적 동질성과 외적 이질성을 확인하는 한편(Patton, 1990), 새로운 코드나 범주가 존재하는

지 검토하고, 원자료를 다시 읽으며 개별적 중심주제들이 전체 자료의 맥락에서 타당한 것들인지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을 통해 이해하게 된 내부자의 관점을 외부자적 시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연구자의 관점에서 연구결과의 의미를 해석하였다.

3. 연구의 엄격성과 진실성

자료 분석과정에 연구자의 편견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연구의 엄격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료 집단의 조언 및 지지를 구하였다. 평생교육, 사회복지, 심리학, 그리고 미학 연구자 등 네 명의 외부 동료들이 자료의 적합성 확인부터 도출된 코딩항목 비교와 조정 작업에 도움을 주었으며, 최종 분석 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토 작업도 진행하였다.

IV. 연구 결과

중심주제분석 과정을 통한 결과는 크게 세 개의 주요 테마와 12개의 주제별 하위 범주로 도출되었고, 아래 <표 1>을 통해 정리하였다. 따옴표 안의 문장은 에세이에서 발췌한 응모자들의 진술이다. 이와 함께 대표적인 개별 사례 인용을 통해 응모자의 목소리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표 1. 세 가지 중심주제와 하위 범주

중심주제	하위 범주
인생 2막은 자기 자신으로 사는 시간으로서 주도적 노력이 필수임	타인에 대한 책임역할에 충실했던 삶에서 벗어나 자기 집중적 삶을 맞이함
	역할 상실 및 변화에 따른 자신의 새로운 포지션 이해
	그에 따라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연습하게 됨
개인적 의미와 사회적 가치가 있는 현재 진행형 노년의 삶을 살고 싶음	삶의 마침을 고민하며 자신을 되돌아보고 정리함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 통해 사회적 가치도 충족시키고 싶음
	여전히 사회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존재임을 확인받고 싶음
	과거에 경도되지 않고 현재에 충실하며 미래를 계획함
	노인답게 잘 사는 것을 보여줌으로서 긍정적인 노인모델 제시하고 싶음

중심주제	하위 범주
8만 시간 마음껏 디자인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부족	노후 삶 계획에 필요한 토대가 마련되지 않은 사회
	자신이 적극적으로 만들어가지 않으면 무위의 삶을 살 수 밖에 없는 사회
	철저히 개인적 역량에 맡겨진 노후의 삶
	재량이 아닌 백세시대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야 함

1. 인생 2막은 자기 자신으로 사는 시간으로서 주도적 노력이 필수임

노부모양육과 자녀양육, 그리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살아온 응모자들은 현재의 삶을 “부여된 의무를 마치고 쉴 수 있는 시간”이자 “열기를 식히고 속도를 줄이면서 자신을 돌아볼 시간”으로 묘사하고 있었다. 성별 및 은퇴 여부와 상관없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여전히 자신과 배우자의 생계를 꾸려가야 하지만 “가족에 대한 의무, 집안의 경제를 일구는 역할에서 한 발짝 놓여났기에” 이제는 “자신만의 삶을 자유롭게 살고 싶은 때”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타인에 대한 책임이 끝나고 “은전한 자기 시간”이자 “의무적인 일이 아닌 자기 스스로 부여하는 일을 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은퇴와 자녀 독립 등으로 그동안 부과되었던 역할들에 변화가 오고 그것이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의무에 급급하며 주어진 역할에 충실했는데 이제는 능동적으로 역할을 만들어가야만 하는 때가 된 것을 실감하는 것이다. 자기 역할을 찾기 위한 능동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노후 시간디자인은 전적으로 자기 책임”이 되었다.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가는 책임이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이자 자기 삶에 대한 예의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비록 불공평하지만 “나이 들어 어느덧 모두 한 출발선에서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60세부터는 결승점을 향해가는 것”이기에 “주변을 정리하고 살피면서 인생 종착역인 임종 길에 맞추어 숙려와 자성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직에 있을 때는 일과 가정 일로 스트레스, 항상 뭔가에 쫓기고 압박받는 마음으로 편안할 날이 없었다. 은퇴라는 전환기를 맞아 처음에는 아쉽고 서운한 마음 들었지만 점차 해방과 함께 가벼운 자유인이 되었음을 실감하였다(64세 남 전직공무원).

그동안 가족을 돌봐야 하는 책임과 의무감으로 살아왔다면 앞으로는 숨을 고르고 자유를 누리며 스스로에게 보상할 수 있는 일, 스스로에게 하고 싶은 일 선물할 것이다(62세 남 현직 교사).

가족에 대한 의무, 젊음에 대한 갈등, 자녀의 관심에서도 놓여난 때, 젊어서는 할 수 없었던 일들 할 수 있는 때다. 텔레비전의 황금시간대가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의 황금기라고 본다(65세 여 주부).

은퇴 후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전적으로 자기의 책임이다(65세 남 전직 회사원).

결승전 향해 가는 이 시간은 자기가 책임지고 꾸려갈 시간이다(61세 남 자영업).

2. 개인적 의미와 사회적 가치가 있는 현재진행형 노년의 삶을 살고 싶음

응모자들은 사회에서의 은퇴가 “인생의 은퇴”는 아니기에 “삶에서는 은퇴하지 않는” 노후여야 한다고 본다. 특히 은퇴한 응모자들의 경우 은퇴 후 삶을 꾸려가는 데 있어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며 무엇보다 삶의 목적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응모자들은 “목적이 없으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무의미와 무위(無爲)를 두려워한다. “한때는 조바심에 그냥 바쁨을 추구하는 때도 있었으나” 그것보다는 의미 있는 일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응모자들의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아직 현역에 있는 경우에는 8만 시간에 대한 계획을 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반면, 전직 은퇴 후 현재를 구체적인 스케줄로 채우고 있는 경우에는 현재 자신이 보내고 있는 8만 시간과 앞으로 보낼 시간에 대해 상세하게 그리고 있었다. 연령과 성별, 은퇴 여부 불문하고 대부분 응모자들은 “사람은 각각 다르기에 8만 시간의 모습은 각양각색”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이 봉사든 학습이든 자신에게 의미 있는 활동을 하며” 그것을 통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다.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것을 통해 나아가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응모자들은 자신의 노화를 인식하고 있으며, 과거의 영광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 충실하면서

지금 이 시간을 잘 보내고자 한다. 별다른 노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던 부모세대, 그리고 “은퇴 후 무위로 보내는 선배들의 안타까운 삶”을 반면교사 삼아 자신은 “나이 들어도 나이 든 대로 잘 사는 모습을 보이며,” “젊은이들이 늙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모범이 되는 노인이 되도록 열심히 살고자 한다.”

사회에서는 은퇴하지만 삶에서는 은퇴하지 말라. 나이가 들어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지혜와 경험을 살려 남을 돕는 것이 진정 가치 있게 사는 것이다(60세 남 전직 기자).

희망 없는 삶은 무의미하다. 죽은 삶이다. 늙었다고 실의에 빠져 희망을 잃지 말고 늙은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일하며 노인답게 살아야 한다(70세 남 은퇴 공무원).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며 그리워하지도 말고 다시 누려보리라는 막연한 꿈도 털어버리고, 현재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을 찾는 것이 은퇴 후를 곱게 가꾸어 가는 길이다(68세 남 전직 교장).

노년기가 사회에 부담 주는 세대가 아닌 사회에 공헌하는 세대가 되기 위해 나누고 창조하는 노인문화 만들었으면 좋겠다(64세 여 은퇴 교사).

젊은 후대에 모범이 되기 위해 추구할 가치와 철학이 있는 노년 계획을 세워야 한다. 자신의 호구지책 마련 스스로 해결하며 노인이 결코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암초나 바위가 아니라는 사실 입증하고 싶다(63세 남 농업).

우리 사회는 어른스럽고 깨끗한 노인상이 필요하다. 나이든 나뭇대로의 아름다움 있는데, 자립, 존경, 사회에 공헌하는 지혜로운 노인상이 있어야 한다(81세 남 전직 정보 없음).

3. 8만 시간 마음껏 디자인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부족

응모자들이 인생 2막을 시작하면서 무엇을 할지 고민할 때 하는 질문들은 주로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지역을 위해 할 일은 없는가”이었다. 몇몇 응모자들은 “그동안 하고 싶었으나 하지 못했던 일을 하며 살기”로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퇴직 후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기보다 현재 능력과 생활 여건 속에서 가능한 의미 있는 계획을 실천하기로 한다.” 그런데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8만 시간 잘 보내기 위해 노력하고 싶은 마음은 절실하지만 쉽지가 않다.” 은퇴 전 “나름대로 준비하긴 했는데 혼자서 준비한 것이 막연한 계획이었고” 늙음을 백안시하는 사회 분위기와 “전반부 인생에 맞춘 사회제도 탓에 노인이 설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응모자들에 의하면 “잘 보내면 인생 황금기가 될 수도 있는 시기”인데 많은 사람들의 삶이 그렇지 못한 것은 사회적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특히 전직 교사였던 남성들이 언급하듯이 “자기 경력을 살리고 싶어 하지만 사회는 그러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노후준비를 할 필요가 없거나, 여러 가지 학습이나 재취업 정보를 잘 아는 “눈이 밝은” 몇몇만이 “인생을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응모자들에 의하면 노년기 삶의 질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은 것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생 후반전을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선택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여건이 뒷받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며, 일본 등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부족한 여건을 비판하고 있었다. 그리고 특히 여성 참여자들은 8만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사회는 노인 뿐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도 살기 좋은 사회라고 이야기한다.

눈이 밝아 자신 있게 목표 찾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은퇴자가 여생의 목표를 찾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74세 남 은퇴 교사).

은퇴 후 어떤 방법으로든 제 2 인생을 고민하지 않는 은퇴자는 없다. 이런저런 생각과 고민 속에서 하루하루를 소일하며 쪼그라드는 인생을 맛보며 사는 사람들 의외로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현직 은퇴자는 반드시 제2인생 설계를 위해 재교육 필요하다(64세 남 퇴직 회사원).

인생이라는 학교에서 방과 후 시간에 처해 있다. 한국에서는 은퇴 후 재능과 노하우를 펼칠 수 있는 바탕이나 시스템이 비체계적이다. 빈둥거리거나 폐지나 줍기엔 인생 2막 서글프지 않겠나(65세 남 은퇴 교사).

나뿐 아니라 은퇴 후 대다수는 평생 동안 소임을 다했던 자신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보고자 기웃거린다. 그런데 사회적 분위기와 환경은 그렇지 못하다(63세 남 은퇴 공무원).

일본은 2전직 4학습이라는 국가 비전 수립했다고 한다. 평생 두 번 직업 바꾸고, 첫 취직 전, 두 전직 사이, 은퇴 후 등 네 차례 걸쳐 학습하는 평생학습 체계가 되어 있다. 우리도 은퇴 후 학습 필요하나 국가의 계획적인 배려가 없다. 개인 차원에서 이모작 인생 설계와 실천하게 하고 있다(65세 남 퇴직 교사).

조기퇴직이 요구되는 현 사회는 문제가 많다. 젊은이들이 아이 낳는 것도 꺼리는 사회가 되었다. 8만 시간을 마음껏 디자인할 수 있는 사회라면 많은 일거리가 있고 노후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면 자연히 아이도 많이 낳을 것이라고 본다(63세 여 자영업).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제1차 『8만 시간 디자인 공모전』에 참여한 응모자들 가운데 60세 이상 노인들이 갖고 있는 노후에 대한 기대와 계획에 대해 살펴보았다. 주로 자기표현에 적극적인 성향의 사람이 응모하였을 것이라 예상되며, 자신의 현실과 노후에 대한 기대, 그리고 에세이 내용 간의 간극이 있을 수 있는 기록물이라는 자료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고, 이러한 자료의 특성으로 인해 연령, 성별 및 기타 요소별로 노후에 대한 기대와 준비가 어떻게 다른지를 심층적으로 살펴보지 않은 것은 본 연구의 한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급격한 고령화를 겪으며 평균 수명이 길어진 시대를 살고 있는 노인들이 노년기의 삶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여준다. 그동안 우리사회 노년에 대한 인식이 구노년과 신노년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시각 또는 성공적 노화 담론에 영향을 받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다양한 대항담론과 대안적 문화 각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정진웅, 2012; 한혜경, 2012). 본 연구는 노인들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담론의 장으로서 기능한 공모전 자료 분석을 통해 21세기 노인 세대의 주체적인 경험을 이해하고 다양한 노년 담론 형성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응모자들의 자서전적 세부 사항들로 가득 차 있는 기록물 분석을 통해 밝혀진 이들의 노년에 대한 기대와 계획, 그리고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응모자들은 8만 시간을 정년 이후의 삶을 설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며, 자신을 주부라고 밝힌 아홉 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에게 노년이란 자기 자신으로 살기 위해 잘 만들어가야 하는 인생 후반전이다. 영국의 사회학자인 피터 레슬렛(1989)이 제시한 후반기 인생의 내용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평균 연령 67세인 응모자들은 일과 자녀양육의 책임에서 벗어나면서 자신의 관심사에 전념할 수 있는 시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었다. 응모자들의 이와 같은 경험은 노년기를 단순하게 여가를 보내는 차원이 아닌 개인적 성장과 발전, 즉 선행 연구에서 묘사하는 서구사회 3시기 세대의 특성이 우리나라 노인에게도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Sadler, 2001; Huang, 2006; Kariston, 2007). 그러나 응모자들은 신노년 담론의 ‘골든 에이지’ 수사(atz & Marshall, 2003; Carr, 2008)에 눈이 가려진 상태는 아니다.

선행 연구에서 우려하는 바와 달리(김지혜·조성남, 2004; 한경혜·윤성은, 2007), 에세이 응모 노인들은 노년기를 중년의 연장으로 보고 있지는 않으며, 자신의 노화를 인지하고 삶의 유한함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신노년 담론의 문화적 압력, 즉 끊임없이 활동하며 자립성을 유지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신노년층으로 살 것을 주문하는 문화적 압박을 속수무책으로 받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첫 번째 중심주제로 도출된 ‘인생 2막은 자기 자신으로 사는 시간으로서 주도적 노력이 필수임’이라는 의미는 길어진 노년기에 적합한 생활양식을 만들어 가야 할 필요성을 삶으로 체험한 결과 나온 것이다. 이들은 오랫동안 주어진 역할에 충실했던 생의 단계를 지나 자기 존재의 위치를 가늠하는 탐색기를 거치면서 아직 남아있는 시간을 자기 자신으로 살아야 하는 기회의 시간으로 여기게 되었기 때문이다. 응모자들은 활동적이기 위해 바쁜 삶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며, 새로운 노년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중이다.

두 번째 중심주제인 ‘개인적 의미와 사회적 가치가 있는 현재진행형 노년의 삶을 살고

삶'이란 주제는 노인답게 잘 살고 노인들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로서 인정받고 싶은 이들의 욕구를 보여주는 것이다. 응모자들에 의하면, 개인적으로 의미 있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취감이나 즐거움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에게 자아실현은 사회와 의미 있게 연결되고, 사회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일(work)이 우리를 정의하는 인생 전반기와 달리, 은퇴 후 그리고 노년에는 다른 목적과 가치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Savishinesky, 2001). 그것이 여가활동이든 타인에 대한 봉사활동이든 사람들은 노후에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 역할모델이나 문화적 이미지와 씨름하게 된다(정진웅, 2012). 현재 중고령 세대는 그 선배 세대보다 더 건강하고 활동적인 특성을 보인다는 인식하에 이들에게 새로운 노년문화를 기대한다는 연구 결과처럼(신경아·한미정, 2013), 본 연구 대상자들은 기꺼이 역할 모델이 되고자 하는 욕구를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의미하는 역할 모델이란 주류 문화가 인정하는 자질을 갖고 있는 소수 노인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다. 응모자들은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성공적으로 노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도(Rudman, 2006), 마치 67세 여성 응모자가 기술한 것처럼 “해질 녘의 노을을 보고 감탄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을 원한다. 만약 우리 사회가 응모자들이 바라는 것처럼 나이든 사람은 나이든 대로 살아있는 존재감을 확인하고 확인받는 것이 가능하다면, ‘8만 시간을 마음껏 디자인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부족하다는 세 번째 중심주제는 도출되지 않았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백세시대 고령자의 노후에 대한 기대와 계획과 관련된 내면적 욕구를 드러낼 뿐 아니라 이들의 심리사회적 발달과업의 성취가 가능한 사회구조적 과업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8만 시간을 마음껏 디자인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노년기를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평균 수명의 증가, 그리고 노인구성원의 비율 증가에 따라 21세기 현재 우리는 중년과 노년의 정의가 변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Powell & Longino, 2002; Biggs et al., 2006). 노후를 여생(餘生) 또는 단절된 특별한 시기가 아닌 생애주기의 연속선상에서 접근해야 하며, 노화의 경험을 동질적인 현상이 아닌 다양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노년기의 삶은 그 어떤 시기보다도 이전 단계의 생활양식과 삶의 경험, 그리고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기 때문이다.

둘째, 본 연구 결과는 백세시대의 인생설계 모델들을 다양하게 구상하고 이를 지원하

는 사회시스템 구축이 폭 넓은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함을 보여 주었다. 백세시대를 잘 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건강과 경제적 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응모자들이 에세이를 통해 밝힌 것처럼 사회구조적인 뒷받침 없이 이뤄지는 노후준비는 많은 한계가 있다. 사회경제적 상황, 고용 상태, 교육 수준, 성별, 결혼 상태, 신체적 상황에 따른 개개인의 자원에 따라 노년기 삶의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노인들이 보다 공평하게 이 시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전 생애주기에 걸쳐 건강, 교육, 고용과 관련된 사회구조적 정비가 갖춰지고, 개개인의 욕구와 경력분석, 그리고 평생학습과 일자리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손유미·이성, 2011).

셋째, 백세 시대 노인에게 필요한 삶의 모델은 재무준비뿐 아니라 전반적인 생애준비 관점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공모전 응모자들이 언급했듯이 노후준비는 단순히 재무적 차원의 준비가 아닌 은퇴와 함께 변화하는 삶의 여러 가지 영역을 계속해서 재정비하는 작업으로서 하루라도 빨리, 그리고 나이 들수록 더욱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이다. 노후준비는 재무, 건강, 심리사회적 관계, 주거 등 다차원적인 면을 염두에 두고 지속적인 점검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Bode et al., 2006).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직 현역에 있고 본격적으로 은퇴를 맞이하기 전에는 노년기를 보낼 준비가 강박적인 것에 비해 덜 구체적이며 추상적인 경우가 많을 것이다(김유진·정가윤, 2014). 생의 후반기에 들어서기 훨씬 전부터 자기 자신 및 주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재무준비 차원을 넘어선 전반적인 노후준비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도 은퇴 후 사회구성원으로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기회가 많이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노인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것은 그 사회가 얼마나 연령통합적 사회인지에 달려 있다고 한다(Carr, 2008). 결국 의미 있는 노후준비가 가능한 사회란 노년기에 진입하는 세대 또는 노인들뿐만이 아니라 전 연령대가 살기 좋은 사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김유진은 미국 Loyola University of Chicago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노인상담, 공동생활주거, 질적연구방법론이며, 현재 노인공동생활주거와 노인학대 현상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 (E-mail: yjkim@knu.ac.kr)

참고문헌

- 권중돈, 김유진, 엄태영(2011). 노년기 자살행동 경험의 의미와 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노인복지연구*, 52, pp.419-446.
- 김유진, 정가운(2014).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에 대한 이해.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2), pp.283-293.
- 김정석(2007). 고령화의 주요 사회이론과 담론. *한국노년학*, 27(3), pp.667-690.
- 김주현, 김지혜, 김희주(2013). 노인의 '나이 들'의 경험에 대한 연구: 서울과 수도권 노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회지*, 18(3), pp.269-310.
- 김지혜, 조성남(2004). 고령화 사회의 노인 정체성 형성과 내용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논총*, 12, pp.271-297.
- 박충선(1998). 노년기의 생활시간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8(2), pp.30-46.
- 손유미, 이성(2011). 베이비붐 세대 제2인생설계 구축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신경아, 한미정(2013). 뉴시니어로서의 베이비붐 세대: 은퇴 후 삶에 대한 지향과 성공적인 적응을 위한 콘텐츠 수요에 관한 연구. *미디어, 젠더 & 문화*, 25, pp.113-144.
- 신기혁(2007). 광고공모전: 학생들은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언론학연구*, 11, pp.50-75.
- 이가옥, 우국희, 최성재(2004). 노인독립 담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 독립과 의존의 재개념화. *한국사회복지학*, 56(1), pp.5-22.
- 이의수, 기영화(2010). 씨드 에이지 퇴직 남성의 퇴직준비학습경험이 성공적 노후에 미치는 요인: 자아정체성을 중심으로. *평생교육·HRD연구*, 6(3), pp.115-130.
- 이상원(2011). 영화감상 에세이: 대학생들은 무엇을 어떻게 쓰고 있다. *사고와 표현*, 4(2), pp.151-174.
- 이준우, 이현아, 황준호(2011). 한국 노인의 노후생활에 관한 인식. *한국노년학*, 31(3), pp.711-732.
- 정경희(2013). 고령화 시대의 노년기 준비의 의의와 과제. *보건복지포럼*, 10, pp.6-14.
- 정경희, 한경혜, 김정석, 임정기(2006). 노인문화의 현황과 정책적 함의: '성공적 노화'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병은, 이기홍(2009). 노인이 인식하는 사회활동에 대한 연구. *한국노년학*, 29(3), pp.953-970.

- 정진웅(2012). 노년의 문화인류학(제2개정판). 파주: 한울.
- 정진웅(2006). 노년의 문화인류학. 파주: 한울.
- 최희경(2010). '신노년' 정책 담론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 활동적 노화, 성공적 노화, 생산적 노화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17(3). pp.41-65.
- 한경혜, 외 7명(2013). 베이비부머 삶의 변화와 지속성, 2010-2012. 한국 베이비부머 패널 연구 2차년도 보고서.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 연구소·메트라이프 재단.
- 한경혜, 윤성은(2007). 대중매체에서의 신노년 담론 분석: 신문매체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7(2), pp.299-322.
- Arosio, L. (2010). Personal documents on the Internet: what's new and what's old. *Journal of Comparative Research in Anthropology and Sociology*, 1(2), pp.23-38.
- Atchley, R. C. (1989). A continuity theory of normal aging. *The Gerontologist*, 29(2), pp.183-190.
- Atkinson, P., Coffey, A. (2011). Analysing documentary realities. In D. Silverman (Ed), *Qualitative research*, 3rd ed., London: Sage, pp.77-92.
- Bauer, M. A. (2000). Analytic approaches for text, image and sound: classical content analysis. In M. W. Bauer & G. Gaskell (Eds), *Qualitative researching with text, image and sound: a practical handbook*, London: Sage, pp.131-151.
- Biggs, S., Phillipson, C., Money, A-M, Leach, R. (2006). The age-shift: observations on social policy, ageism and the dynamics of the adult lifecourse. *Journal of Social Work Practice*, 20(3), pp.239-250.
- Bode, C., de Ridder, D. T., Bensing, J. M. (2006). Preparing for aging: Development, feasibility and preliminary results of an educational program for midlife and older based on proactive coping theory. *Patient education and counseling*, 61(2), pp.272-278.
- Braun, V., Clarke, V. (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 pp.77-101.
- Carr, D. (2008). Redefining the role of older adults in society: Does the "Third Age" promote a successful alternative to the tripartitioned life course? *Journal of Societal and Social Policy*, 7, pp.37-51.

- Chapman, S. A. (2005). Theorizing about aging well: Constructing a narrative. *Canadian Journal on Aging, 24*(1), pp.9-18.
- Cowgill, D. O., Holmes, L. D. (1972). *Ageing and Modernization*. New York: Appleton.
- Cummings, E., Henry, W. E. (1961). *Growing old*. New York: Basic.
- Havighurst, R. J.(1961). Successful aging. *The Gerontologist, 1*, pp.8-13.
- Holstein, M. B., Minkler, M. (2003). Self, society, and the “new gerontology”. *The Gerontologist, 43*(6), pp.787-796.
- Kariston, A. (2007). Finnish baby boomers and the emergence of the third ag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Later Life, 2*(2), pp.91-108.
- Katz, S. (2001). Growing older without aging? Positive aging, anti-ageism, and anti-aging. *Generations, 25*(4), pp.27-32.
- Katz, S., Marshall, B. (2003). New sex for old: Lifestyle, consumerism, and the ethics of aging well. *Journal of Aging Studies, 17*(1), pp.3-16.
- Laslett, P. (1989). *A fresh map of life: The emergence of the third age*. London: Weidenfeld and Nicolson.
- Lincoln, Y. S.,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Newsbury Park: Sage.
- Miller, F. A., Alvarado, K. (2005). Incorporating documents into qualitative nursing research.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37*(4), pp.348-353.
- Minkler, M. & Fadem, P. (2002). Successful aging: a disability perspective. *Journal of Disability Policy Studies, 12*(4), pp.229-235.
- Patton, Q. M. (1990). *Qualitative Evaluation and Research Methods*. Newsbury Park: Sage.
- Pepin, G., Deutscher, B. (2011). The lived experience of Australian retirees: ‘I’m retired, what do I do now.’ *British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74*(9), pp.419-426.
- Prenda, K. M., Lachman, M. E. (2001). Planning for the future: a life management strategy for increasing control and life satisfaction in adulthood. *Psychology and aging, 16*(2), pp.206-216.
- Prior, L. (2008). Documents and action. In P. Alastuutari, L. Brickman & J. Brannen (Eds), *The Sage Handbook of Social Research Methods*, London: Sage, pp.479-492.

- Prior, L. (2003). *Using Documents in Social Research*. London: Sage.
- Rosow, I. (1976). Status and role change through the life span. In Binstock, R. H. & Shanas, E. (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pp.457-482.
- Rowe, J., Kahn, R. (1997). Successful Aging. *The Gerontologist*, 37(4), pp.433-440.
- Rozanova, J. (2010). Discourses of successful aging in The Globe & Mail: insights from critical gerontology. *Journal of Aging Studies*, 24, pp.213-222.
- Rudman, D. L. (2006). Shaping the active, autonomous and responsible modern retiree: An analysis of discursive technologies and their links with neo-liberal political rationality. *Ageing and society*, 26(2), pp.181-201.
- Savishinesky, J. (2001). Images of retirement: finding purpose and the passion. *Generations*, 25(3), pp.52-56.
- Weiss, R. S., Bass, S. A. (Eds.) (2002). *Challenges of the third age: Meaning and purpose in later lif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Yeung, D. Y. (2013). Is pre-retirement planning always good? An exploratory study of retirement adjustment among Hong Kong Chinese retirees. *Aging & Mental Health*, 17(3), pp.386-393.

A Study on the Expectations and Preparation for Later Life among Older Adults in the 21st Century:

Analysis of Personal Documents from
『80,000 Hours Design』 Competition

Kim, Yuji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With the increasing proportion of the aging population and an increase in life expectancy, there is increasing interest in the later life. As a result, what to do and how to live in one's later years have become an important topic.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xpectation and preparation for later life among older adults' by analyzing personal documents from 80,000 hours design competition. Using thematic analysis, essays written by 59 older adults who were 60 years old and over were analyzed. Three main themes were emerged as follows: ① the second chapter of life should be a time for being oneself and requires one's proactive efforts, ② it should be ongoing, meaningful to oneself, and valuable to the society, ③ preparing for later life is not easy due to the lack of social conditions. Based on the findings, practical implications for preparation for later life in 21st century are discussed in three ways.

Keywords: Expectation and Preparation for Later Life, 80,000 Hours Design, Personal Document Analysis, Thematic Analysis